

7/12(월) 다니엘 묵상 36

다니엘 9: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절은 본문의 배경, 3-19절은 다니엘의 기도, 20-27절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

다니엘 9장 1절은 다니엘이 세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1절).”** 여기서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 4장과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는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Pharaoh)의 이름과 같이 말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단 6장에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또 다니엘이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했던 인물입니다(단 6: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다리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기뻐하며 메대 온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찬송하도록 명령했던 왕이었습니다(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9장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의 다리오가 들어선 첫 해에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비록 (신)바벨론의 권세는 강력하여 영원할 줄 알았지만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한 남유다는 그들의 원수가 예상보다 빨리 멸망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멸망 당하게 하신 것은 바벨론이 결코 정의롭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의 힘과 권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깨달음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 왔을 때(기원전 B.C. 605년) 남유다에서 선지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구해서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예레미야 29:1절을 보면 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렘 29:1,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렘 29:28,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이 편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한 때로서 절묘하게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기에도 맞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 앞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다음 구절인 3-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깨달음을 주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살전 1: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 앞에서 은혜받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을 넘어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 하나님께 민족의 장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을 넘어 실천하고 적용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대통령 피살로 인해 국가가 혼란한 정국에 빠져 있는데 하이티를 보호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